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적극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밝혀… ‘이동신문고’ 국방관련 민원 많아

[속보]거진을 대대리 포사격훈련장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제29호, 9월 5일자 보도),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포사격훈련장 현장에서 군부대 관계자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 포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사격장 이전을 요구했다.

최영섭 대대리 이장은 “하필이면 왜 영동권에서 대대리에서만 사격을 하느냐”며 “전방에 산다는 죄 때문에 그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았는데, 이제



지난 7일 대대리 포사격훈련장 현장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민원접수 모습.



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중앙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했다.

이택용 고성군이장단협의회장은 “고성군은 어업과 관광업이 중요한데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포사격 소리가 나면 차를 멈추고

돌아본다”며 “사격장을 이전하더라도 고성군에 돈이 없으니 원인 자부담으로 하지 말고 국방부나 정부 예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고등학교 윤용환 학생회장은 “각종 모의고사 등 학력평가 때 포를 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며 “학생들도 불안해하지만 선생님들도 포 소리 때문에 수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했다.

포사격 훈련장 인근에 사는 고웅호씨는 “팔순 장모와 손자들이

포사격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22사단 대위가 집에 와서 들어보고는 사격장 보다도 더 소리가 쉼다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결해 드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군부대의 노고와 고마움도 생각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단 포사격장을 옮기기 전에 당장 학교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격 시간대를 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사격장 이전은 가능한 국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할테니 조금만 인내를 갖고 참아주기 바란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6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는 화진포해변 군 휴양소 이전, 아아진 정보부대 훈련장 건립 반대 등 국방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 최광호 기자

정/가/소/식

손문영씨 24일 속초서 출판기념회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손문영 재경속초시민회회장(사진)이 오는 24일 속초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30분 속초 마레몬스 호텔 지하1층에서 ‘은뎀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다’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손회장은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글로 모아 책을 펴내고 조출한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FC 대표 사퇴의사 유감”

한나라당 도의원들 성명서 발표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남종현 강원FC 대표이사의 사퇴의사 표명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 대표 취임 이후 강원FC는 흥경기에서 승리했으며, 남 대표가 사재를 털어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구단의 사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강원FC 이사회가 최지사가 추천한 사람 대신 남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임한 상황에서, 남 대표가 대표이사로 추대되던 날 구단주인 최순순 도지사에게 인사를 갖지만 이 자리에서도 지사에게 사임을 종용받았다고 밝혔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민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파를 떠나 최소한의 인품도 갖추지 못한 도지사에게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전화만 주시면 다 해드립니다”

고성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가족관계증명서 등 28종

고성군은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민원장구 이용이 불편한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538명,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006명 등 모두 2,544명이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해 민원서류를 준비한 뒤 다음날 근무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의 신

정절차를 거쳐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배송해 준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인증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20종, 건축물관리대장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 8종 등 총 28종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하반기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고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보일러와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점검·설치해 주는 하반기 안전복지서비스를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천100만원을 들여 1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시설의 경우 환기 적합상태 및 적합장소 설치여부 확인 후 보일러 청소 및 노후부품 교체를 실시한다.

전기시설은 설비·배선의 적합

여부 및 전기사용 합리화 진단 후 노후전선, 불량차단기, 콘센트, 전등교체 등을 실시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소방시설 안전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2009년에는 273가구, 2010년에는 324가구, 올해 상반기에는 13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해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했다.

최광호 기자